

# Daily Auto Check

2022. 8. 17 (Wed)



자동차/타이어

Analyst 김준성

02.6454-4866

joonsung.kim@meritz.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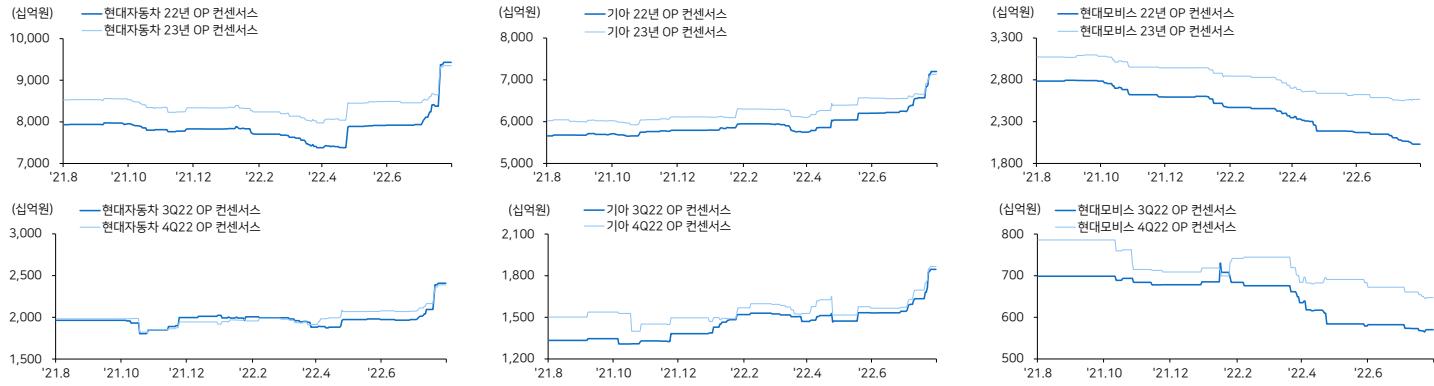
RA 장재혁

02.6454-488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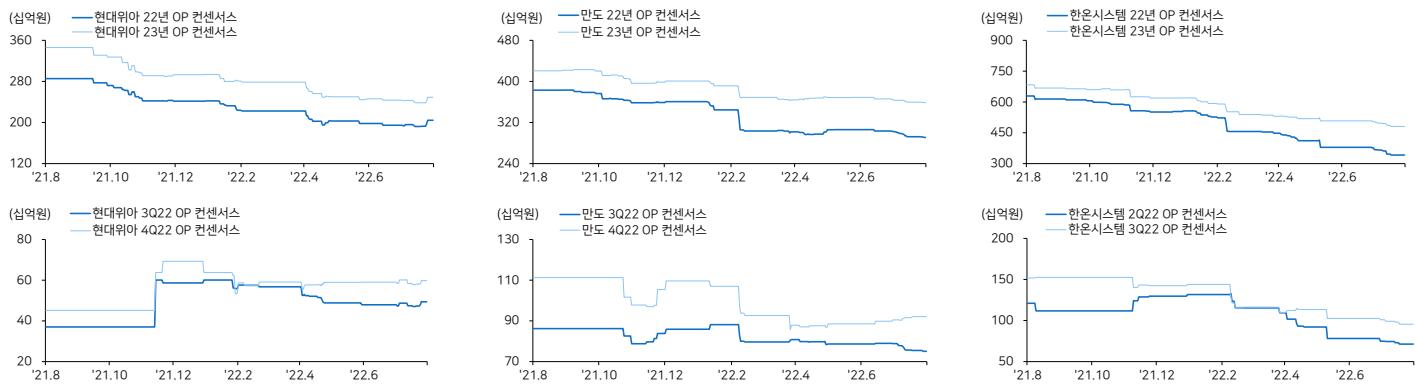
jaehyeok.jang@meritz.co.kr

## 커버리지 컨센서스 추이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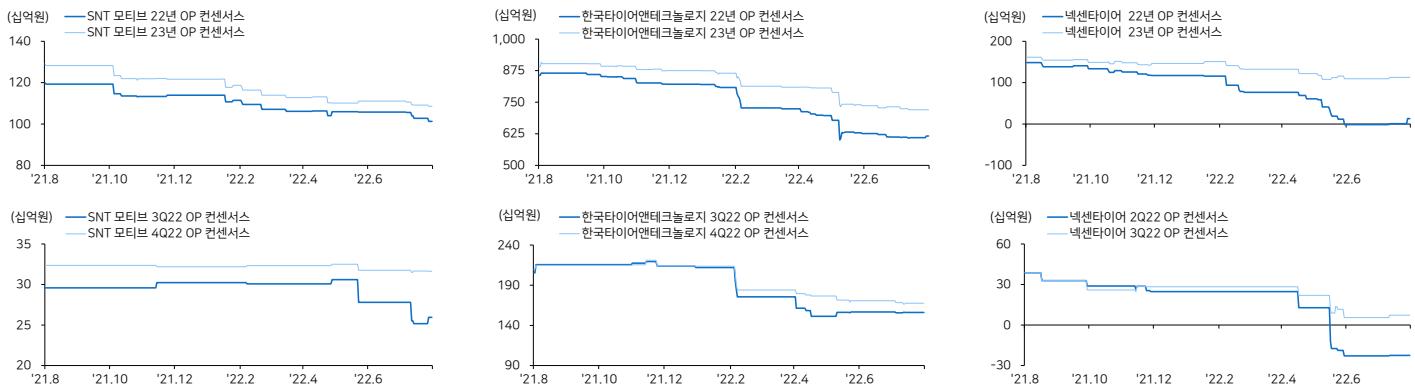
현대차 / 기아 / 현대모비스



## 현대위아 / 만도 / 한온시스템



## SNT모티브 / 한국타이어 / 넥센타이어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 국내외 주요 뉴스

### "70%가 보조금 못 받아"…美인플레 감축법에 전기차 회사들 반발 (머니투데이)

중국 원자재 의존도가 높은 전기차에 '미국산'으로만 생산하는 걸 강제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자 완성차 업계는 날선 비판을 쏟아내는 중. 기아는 "영예에 지장을 초래하는 파괴적인 법안이고 고객에게도 큰 불운이 될 것"이라고 지적.  
<https://bit.ly/3c33D7h>

### 美 7월 신차 재고 102만대, 역대 최저 수준 근접 (글로벌이코노믹)

미국 전역의 딜러 판매업체에서 보유한 신차 재고를 기준으로 조사한 결과, 미국 7월 신차 재고 규모는 102만대로 추산됨. 글로벌 공급망 여파가 지속되며 지난 2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하며 역대 최저 수준에 근접.  
<https://bit.ly/3Cclfsa>

### U.S. says about 20 models will get EV credits through end of 2022 (Reuters)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한 법안에 따라 이전에 적격이었던 72개 모델의 약 70%에 대한 크레딧을 즉시 종료, 약 20개의 모델만이 2022년 말까지 7500달러 세액 공제를 적용받을 예상. 또한 IRA법안에 따른 새로운 세액공제는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  
<https://reut.rs/3QpQILl>

### Polestar (PSNY) announces its O2 roadster concept will enter production as the Polestar 6 (electrek)

풀스터리가 사전에 공개했던 O2 컨셉카가 Polestar 6로 출시될 계획. 2026년 이후 생산 예정이며, Polestar 5와 같은 800V 아크 테크, 제로백 3.2초, 최고 속도 250km/h 등의 주요 스펙이 예상됨.  
<https://bit.ly/3JYLZOB>

### 틱톡 범죄 놀이'에 미국서 현대차·기아 차량 절도 확산 (연합뉴스)

최근 미국에서 틱톡 등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승용차를 훔치는 범죄 놀이가 유행하는 가운데 현대차와 기아 차량을 노린 절도 사건이 빠르게 확산 중. 7월 이후 도난신고 건수는 642건으로, 지난해 74건 대비 9배 급증한 수치.  
<https://bit.ly/3ApwH0f>

### 中 샤오피, 테슬라보다 먼저 '휴머노이드 로봇·자율주행차' 공개 (오토헤럴드)

샤오피는 최근 중국에서 열린 신제품 발표회를 통해 승용차를 훔치는 범죄 놀이가 유행하는 가운데 현대차와 기아 차량을 노린 절도 사건이 빠르게 확산 중. 7월 이후 도난신고 건수는 642건으로, 지난해 74건 대비 9배 급증한 수치.  
<https://bit.ly/3QwqTR>

### Tesla (TSLA) expands its Virtual Power Plant to Southern California (electrek)

Tesla는 Southern California Edison(SCE)과의 새로운 파트너십을 통해 캘리포니아의 강가 발전소를 남부 지역으로 확장. 이를 통해 로스앤젤레스와 주변 지역의 Tesla Powerwall 소유자는 선전 제공을 대가로 금전적 보상을 받음.  
<https://bit.ly/3A88zJA>

### Column: US hits the EV accelerator to cut Chinese metals ties (Mining.com)

IRA는 기존 EV 보조금을 최대 7,500달러까지 확대하지만 미국 및 FTA 협약 국가에서 채굴한 광물 사용 비중을 강제. 이는 미국 주도의 우호적인 핵심 광물 생산 능력을 구축하고 주요 광물의 중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움직임.  
<https://bit.ly/3ppVDjQ>

## Compliance Notice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에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 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접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지로서 오자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